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0 호

2019 년 3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뉴스레터 200 회 축하 메시지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안내 (3/26)
3.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3/29), <교통·물류>(4/12) 간담회' 안내
4.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간담회 결과공유 (2/19)
5. 제 3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 결과공유 (3/13)

■ 본부 소식

1. 80 여개 이상 증권거래소, 성 평등 위한 '링 더 벨(Ring The Bell)' 캠페인 참여
2. CEO 들, 성 평등을 위해 힘을 모으다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9 - 탄력적인 인프라 설립, 지속가능한 산업화 혁신 조성
2. [SDGs 솔루션] 생태적 6팩 고리
3. [Global Goals in Action]- 콜게이트 파몰리브(Colgate-Palmolive)

■ UNGC 회원 뉴스

1. 유니베라, 건강한여성재단과 여성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
2. 체육공단 "국민체력100, 연간 371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3. 환경기업의 국외 학술자료 활용 지원
4. 한수원, 공기업 협의체 발족... 사회적 가치 성과 극대화한다

■ CSR 뉴스

1. [UNGC CSR 가이드-①] "인권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2. '누구도 소외 안 되게' 기업 역할의 버전업
3.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야"
4. 유엔 사무총장 "여성 권리 증진 전 세계 진전에 필수적"
5. 세계은행 "6개국만 남녀 동등한 노동권 보장"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뉴스레터 200 회 축하 메시지

2017 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가 200 회를 맞았습니다. 그간 국내외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소식을 전하고 SDGs 등 유엔 아젠다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뉴스레터 구독자이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Q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200 회 축하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성과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더욱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흘러가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 회의 뉴스레터는 그런 의미에서 축하 받아 마땅한 일 같고요. 200 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CSR 확대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 200 회를 축하드립니다. SDGs 개념 설명부터 해외 동향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볼 때마다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노력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CSR 분야에서 '빛과 소금' ^^ 같은 정보와 시각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Q2. 어떤 콘텐츠/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모든 뉴스레터가 나름대로의 주제와 독자들이 원할만한 좋은 콘텐츠 였던것으로 기억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건 2018 년 9 월 폴 폴만 유니레버 CEO 방한 내용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실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뉴스레터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적 고용을 위한 워크숍 행사와 양성평등을 위한 SDGs 설명과 해외 동향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협회소식과 본부소식도 유용하지만, 특히 SDGs 소식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SDGs 소식은 SDGs 와 관련하여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세계의 새로운 트렌드나 신기술, 그리고 다른 회사/기관의 SDGs 사례를 볼 수 있어서 통찰력이 가득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Q3.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어떤 정보를 더 듣고 싶으신가요?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10 년 이상 CSR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주로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SDGs 를 도입할 때 크든 작든 고민이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경영방침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나, KPI 와 연계하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등등...이런 고민들을 상담(?)하는 코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 대분야 10 대원칙 및 SDGs 를 비롯한 유엔아젠다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안내 (3/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SDGs CEO 지지 서약> 및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런칭이 진행됩니다.
또한, 임원 및 이사진 변경, 2018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안내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 | | |
|--------|----------------------------------|
| · 일 시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10:30 - 13:30 |
|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볼룸(3F) |
| · 참가대상 | 회원 대표 및 실무진 |

회원사 대표님들께서 이번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위임장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대참자를 필히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2019 정기총회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30	등록 및 접수
10:30 - 11:10	본 회 의 I. 임원 및 이사진 변경 II. 2018년 주요 업무 실적 및 결산 보고 III. 감사 보고 IV.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11:10 - 11:20	휴 식
11:20 - 11:40	특별강연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11:40 - 11:50	2019 SDGs CEO 지지 서약 및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런칭 사진 촬영
11:50 - 12:00	단체 사진 촬영
12:00 - 13:30	오 찬



반기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보아오포럼 이사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석좌교수

前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 등 록: 아래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첨부한 위임장에 서명하시어 **3월 19일 (화)**까지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전 화 02 749 2149/50
팩 스 02 749 2148
문 의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위임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3.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3/29), <교통·물류>(4/12) 간담회' 안내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교통·물류> 간담회

2030년까지의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유엔,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은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회투자, 사회공헌, 민관협력 등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KPMG는 6개 분야의 SDGs 산업별 매트릭스를 공동 발간하였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추가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편과 <교통·물류>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발간물은 각 산업군과 관련된 협력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SDGs 각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 교통·물류산업의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산업 내 SDGs 전략 및 실질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 Invitation Only

- **일시:** <금융>간담회 2019. 3. 29 (금) 16시 ~ 18시
<교통·물류>간담회 2019. 4. 12 (금) 16시 ~ 18시
- **장소:** UNGC 한국협회 사무처 (시청역)
- **대상:** 금융 / 교통·물류 산업군 기업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15명 선착순)
* <SDGs Compass>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제공

시 간	프로그램
16:00 - 17:00	- UNGC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소개 - 산업별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소개 - SDG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 소개 - 질의 응답
17:00 - 18:00	- 참가 기업 및 기관의 SDGs 사례 및 활동 공유

■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시리즈



식음료·소비재
(2018.5)

제조업
(2018.6)

헬스케어·생명과학
(2018.7)

에너지·화학
(2019.2)

금융
(2019.3)

교통·물류
(2019.3)

문 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82 E. gckorea@globalcompact.kr

[초청장 다운받기(금융)]

[참가신청 바로가기(금융)]

[초청장 바로가기(교통·물류)]

[참가신청 바로가기(교통·물류)]

4.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간담회 결과공유 (2/19)



지난해 11 월 발족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RE100 선언 기업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WWF(세계자연기금)이 참여하며 RE100 제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발족식 이후 첫 모임으로, 이니셔티브 경과 및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삼성전자와 LG 화학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내부 현황 및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아직 선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선언 등을 고려하고, 재생에너지 선택권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2019 년 활동계획 및 RE100 4 법'이라는 발표를 통해 본 이니셔티브의 목적을 국내 전력 사용자(기업·시민)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확보와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고 밝히고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 제시 하는 한편 전력사용자(기업·시민)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선택 및 지지선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마련 촉구 활동, △기업과 시민대상 재생에너지 사용 홍보 활동, △재생에너지 사용 자발적 선언 기업 및 서약 기업 모집에 역점을 두는 한편, 2020 년과 2021 년에는 △기업과 시민대상 홍보 및 관련활동과 △재생에너지 사용 자발적 선언 기업 및 서약 기업 모집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번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은 국내 외 기업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구매 제도 도입을 위해 최초로 여는 자리로, 입법권자인 국회와 집단지성의 요체인 시민사회가 함께 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 월 발족식 당시 선언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KB 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IBK 기업은행, 대덕전자, 엘오티베콤, OB 맥주, 이케아 코리아, DHL 코리아 등이 있으며, 기업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본 이니셔티브의 참여기관으로서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참여해 선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에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들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 / gckorea@globalcompact.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5. 제 3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 결과공유 (3/1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그리고 탄소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시티은행이 후원하는 제 3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이 지난 3 월 13 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6 층 아라홀에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3 번째로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기후변화 관련 제도 및 관련 법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기업들의 기후행동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각국 정부는 기후와 개발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미래에 대비하면서 투자의 근거를 찾고 있다.”며, “이 둘의 시너지가 중요한데, 저탄소 솔루션을 위한 혁신과 투자의 속도, 그리고 규모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선순환 고리, 즉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세웅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CEO 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온실가스 문제에 기인한다”며, “WWF 도 정부정책을 조언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 행동으로 WWF 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춘승 탄소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상임이사는 “2003 년 CDP 가 영국에서 출범하고 한국에서는 2008 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기후변화 이야기에 정부와 기업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과 같은 행사를 보니 시대가 변했음을 느낀다”며, “온실가스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저탄소 경로 달성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발표는 노동운동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주셨습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오늘은 우리에게 닥친 현 이슈들에 대해 얘기 하고자 한다. 2020 년 감축 목표에 대해 전 세계가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탄소할당(Carbon Budget)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1.5 도 달성은 이미 실현이 불가능하고 2 도로 달성하려면, 110 억톤에서 130 억톤을 감축해야 한다. 저 예산으로도 가능한 발전부문의 저탄소화가 관건이라며 무탄소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이미 시대가 신재생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저탄소 부문의 기술개발이 핵심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CDP 김태한 탄소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책임연구원은 “국내 기후·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과 전망 점검을 통한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RE100 관련 관심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 협력업체들도 관심대상이다. 현재 RE100 은 166 개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적으로 참여 여건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제도적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재생 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는데 12 개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전자(전기•전자•통신) 산업의 16 개 기업과 수송(수송•물류•자동차•조선) 산업의 17 개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 및 성과, 정보공개 관점의 기후행동 현황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윤 교수는 “기후 변화의 중요성은 당연하고 이제는 일자리 등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기업이 선두적으로 나서야 하며 CSR 차원이 아니라 수익차원에서 활동하고 또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점차 현명해지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발표 후에는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을 menti.com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 및 “RE100 캠페인”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고 더불어, “과학기반온실가스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참여를 통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의지를 보여주며 기후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후행동에 대한 노력 및 의지 표명이 여전히 미진한 실정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기업들의 기후행동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탄소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동향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문보기](#)

본부 소식

1. 80 여개 이상 증권거래소, 성 평등 위한 '링 더 벨(Ring The Bell)' 캠페인 참여

3 월 5 일,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SSE initiative)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성 평등을 지지하는 개장 타종행사를 가졌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3 월 8 일을 맞아 [80 개 이상의 각국 증권거래소](#)들 또한 비즈니스 내의 여성 경제력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및 금융시장에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를 알리기 위해 글로벌캠페인, '링 더 벨(Ring the Bell)' 참여합니다.



SEE 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와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UNEP FI), 그리고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이제는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 할 때”라며, “차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 세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 평등을 위한 이번 타종 행사의 이유는 비즈니스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각국 증권거래소와 기업들을 포함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EE 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와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UNEP FI), 그리고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이제는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 할 때”라며, “차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 세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 평등을 위한 이번 타종 행사의 이유는 비즈니스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각국 증권거래소와 기업들을 포함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2. CEO 들, 성 평등을 위해 힘을 모으다



20 개 이상 기관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글로벌 다양성 및 관련 노력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응하여 양성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논의를 위해 유엔에서 마련한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성 평등 발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 많은 기관이 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노골적인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 모인 CEO 들은 이해 부족, 두려움, 변화에 대한 피로감, 문화차이 및 산업 관행 등을 포함하는 저항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관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행동들을 논의하며 성 평등 전략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변화를 지지하는 남성모임(Male Champions of Change)'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도중 구성한 성 평등 진보를 위한 본 CEO 라운드테이블은 진정한 성 평등을 확립과 폭넓은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1 보 전진을 위한 2 보 후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 평등은 올바른 일 일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진보 할 때마다, 우리를 후퇴시키려 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가치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브로데릭(Elizabeth Broderik), '변화를 지지하는 남성모임' 창업자 및 여성차별에 대한 유엔 실무 그룹 전문가는 "성 평등 노력에 대한 반발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고 이 역시 진보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변화에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만드는 자들이 그들이 개혁하려는 길을 막는 사람들의 시각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9 – 탄력적인 인프라 설립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 및 혁신 조성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How business leadership can advance Goal 9 on Sustainable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산업, 혁신은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입니다. 지속가능한 산업화는 지역 사회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지구와 인류에 악영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발 도상국에서만 요구되는 연간 1 조 달러의 투자 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화, 더 광범위하게 경제 발전은 양질의 인프라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지역 사회와 기업은 시장,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및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6 억 명의 사람들이 믿을만한 전기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며, 40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산업 및 인프라 자산이 사회, 경제 및 환경 조건의 변화에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달성하고 양질의 탄력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생산자, 고용주, 투자자, 혁신가로서 기업은 목표 9 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기술과 프로세스를 연구, 개발 및 배포하며 고정자산과 인프라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혁신, 정책,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자산에 관여하는 정부와 같은 다른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 및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은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책임 있는 비즈니스는 엄격한 법적 준수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행동 기준을 지향하는 한발 더 나아간 행동입니다.

선도 기업들은 기업 내 기업가 정신과 윤리적 리더십을 육성하여 혁신과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특히 수요가 가장 큰 개발 도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설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역량을 구축하고 기술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개발 도상국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지원 가능합니다. 선도적인 기업은 재원에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 시스템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인프라 및 산업 자산을 기업 자체 및 공급망 운영 전반에 걸쳐 향상시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1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설치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연간 3 조 달러를 지출합니다. 기업은 국가가 정한 모든 관련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자산의 건설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공급합니다. 선도적인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바람직하게는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세계 장기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 개발 및 설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 거주자들이 서비스나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극대화하는 것과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인프라 기술을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수사례

- 기술 회사 A 지속가능한 도시 서비스 인프라를 위한 솔루션이 구현가능하도록 설계된 지역자치단체 대상의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예 : 광전지 도로, 현장 기반 시설 개발)

- 투자 은행 B 는 개발 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채권을 출시하고,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기후 탄력적인 설계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BUSINESS ACTION 2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개발 도상국 산업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을 지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가개발 계획의 산업계의 고용률 증가를 요구합니다. 개발 도상국에 산업 설비나 전략적 산업 공급 업체를 보유한 모든 기업은 그들의 활동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살아남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기술의 이전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선도 기업은 개발 도상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 프로세스 운영을 수립, 투자하거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포괄적인 교육 및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 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보완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역량 구축 및 국가 개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을 극대화합니다.

Example practice

우수사례

- 식품 제조 회사 A 는 영양실조인 사람들에게 영양분과 비타민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이 강화된 곡물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민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패션 소매 업체 B 는 개발도상국의 외딴 지역에 지속가능한 의류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광물 회사 C 는 개발도상국에서 광물 가공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특별 경제 구역을 지원하여 천연 자원 수출의 더 높은 가치에 대해 개발하고 가치 있는 타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인프라에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BUSINESS ACTION 3

재원에 대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며, 글로벌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금융 및 연구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인프라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공헌할 수 있는 지역 및 글로벌 혁신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간 부문과 차별화된 혁신 역량의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보다 큰 규모의 목표 9 달성 과제는 생산적인 글로벌 혁신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서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회사 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고, 벤처 캐피탈 및 기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외부의 혁신적인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 인프라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인 혁신 시스템에서의 리더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연구 기금을 통해 글로벌 지식 기반에 공헌을 하며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은 그들이 지원하는 혁신 시스템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모두에서 제공하거나 업계 공급망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수사례

- 소비재 회사 A 는 개발도상국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확장하려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합니다.
- 커피 소매 업체 B 는 개발 도상국의 농민들에게 10 년간 독점적인 농업 연구를 공유하여 취약한 지역에서 기후 스마트 관행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커피 농업을 통해 농장 소득을 창출합니다.
- 시멘트 회사 C 는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에 부합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 건강, 영양, 재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과학 기반 회사 D 는 혁신 캠퍼스를 운영하는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재료 및 화학 공정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제공합니다.



BUSINESS ACTION 4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인프라 및 산업 자산을 기업 자체 및 기업 공급망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합니다

기업은 인프라 및 산업 자산을 계획, 설계, 자금 조달, 구축 및 운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인프라와 산업 자산의 상당 부분은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며, 기후 변동성 및 환경적 위험을 견딜 수 없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현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인프라 및 산업 자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모든 기업이 동안 그들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과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자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인구 증가, 기술 및 수요 변화, 날씨 패턴 변화, 자연 재해 및 갈등을 고려해 미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선도적인 기업은 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을 보장하면서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선도적인 회사는 기업 자체 및 기업 공급망 운영에 있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공급망 회원과 협력하여 용량을 구축하고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수사례

- 운송 회사 A 는 인프라의 센서를 활용하여 전체 인프라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개발도상국의 관련 이해 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 수력 발전 댐 개발업자 B 는 설치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다양한 개발 경로 및 결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 유럽의 항구 시설 A 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여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융 및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자 다자간 개발 은행과 협력합니다.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생태적 6 팩 고리

Eco Six Pack Ring(E6PR)은 양조찌꺼기로 제작되었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캔들을 보관하기 위해 쓰여져 왔던 플라스틱 고리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6 팩용 맥주 고리입니다.

E6PR 은 양조과정에서 나온 밀과 보리 찌꺼기를 다른 음식물쓰레기들과 같이 사용합니다. E6PR 은 고습도와 내부에 유지되는 캔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 고리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물이 삼켜도 무해하고 컴포스팅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수 일안에 분해되며 자연에 남겨질 경우에는 수 주안에 분해됩니다.



E6PR 의 제품은 대부분의 주류 소매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중고 플라스틱 고리들의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가량은 대부분 바로 분해되지 않고 빛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 포장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플라스틱에서 미세한 조각의 축적을 초래합니다. E6PR 의 솔루션은 주류산업으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합니다. E6PR 은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솔로몬 군도, 스코틀랜드, 호주, 폴란드 등의 공예 양조장들로부터 사용되어왔습니다. 코로나는 멕시코에서 런칭한 E6PR 을 심의한 첫번째 주류 음료회사입니다.

8 백만톤 넘게 바다에서 발견되는 폐비닐은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점차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엔은 2050 년까지 99%의 해양조류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연구는 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를 통해 먹이사슬에 들어갈수 있으며 연젠가는 소량의 플라스틱이 식탁용 소금 및 휴대용 생수에서 나오는 등 인간에 의해 소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Clean Water and Sanitation

코로나는 비영리 단체인 'Parley for the Oceans'와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8 백만 톤 이상의 폐비닐이 바다에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6PR 을 이용하는 것은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중인 전략들 중 하나입니다.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주류 산업의 포장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E6PR 은 업계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입니다.



Life Below Water

이 솔루션은 플라스틱 고리에서 바로 분해되는 소모성 고리로 대체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가해지는 해로운 영향을 줄입니다.

[-원문보기](#)

3. [Global Goals in Action]- 콜게이트- 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콜게이트-파몰리브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환경안전보건 및 공급망 전략담당 앤 트레이시(Ann Tracy) 부사장입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저희 콜게이트의 비전은 세 가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People)과 제품의 품질(Performance of our product) 그리고 지구(Planet)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Building a Future to Smile About'이라는 기업 비전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콜게이트는 언제나 기업 청렴성(Integrity)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목표는 훌륭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워터 스튜어드십(Water Stewardship)은 저희 회사가 참여하는 규모 있는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이는 SDGs 의 6 번 목표와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유엔과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 일관성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함께 이 글로벌 목표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콜게이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신뢰를 제공하고 각 직원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자원들, 깊이 있는 지식, 열정은 매우 진실하고, 이는 저희 콜게이트의 문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느 한 기업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2030년까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년, 세계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기업들처럼 콜게이트도 분명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목표를 받아들이고, 이 부문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UNGC 회원 뉴스

1. 유니베라, 건강한여성재단과 여성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



유니베라가 건강한여성재단과 손잡고 소외여성들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한다. 왼쪽부터 유니베라 박영주 대표, 건강한여성재단 김승철 이사장.

-유니베라가 한국의 여성 인권을 신장하고 소외받는 여성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건강한여성재단과 지난 5일 업무협약을 맺었음.

-구체적으로 의료인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을 교육하는 춘계 심포지엄, 장애여성 건강상담 참고자료 제작, 장애여성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원사업 등을 함께할 계획임.

-협약식에 참석한 박영주 유니베라 대표는 건강한여성재단의 전문성이 웰니스 산업을 이끌어 가는 저희 회사와 함께 국내 여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데 더욱 큰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MBN 뉴스](#)

2. 체육공단 "국민체력 100, 연간 371 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체육공단 "국민체력100, 연간 371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송고시간 | 2019-03-12 14:06

f t v ... | ≡ + -

"연간 114억원 의료비 절감·265명 고용 창출 등"



국민체력100 체력왕중왕 선발대회 장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운동을 통해 의료비도 절감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사업'이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국민체력 100 사업은 만 13 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로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운동프로그램 처방을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음. 지난해에는 약 26 만명의 국민이 참여해 체력인증을 받았음.
- 공단은 "국민체력 100 사업에 1 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약 4 만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공단은 "올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기존 43 개소에서 51 개로 확대하는 한편, S-ROI 를 통한 효과 측정 대상 사업을 늘려나감으로써 대국민 스포츠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3. 환경기업의 국외 학술자료 활용 지원



HOME > 산업·노동·안전 > 산업·기술

환경기업의 국외 학술자료 활용 지원

환경산업기술원-경상대학교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이정은 기자 승인 2019.03.13 15:33

[환경일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경상대학교도서관 외국학술지지원센터(센터장 장봉규)

는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3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경상대학교도서관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3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보유한 외국학술지와 센터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목차서비스(SDI) 등을 입주기업에 지원할 계획임. 또한 연구단지 입주기업이 국외 학술자료 원문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우편배송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함. 이 뿐만 아니라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게 지원하며, 환경에너지 분야 자료의 실제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상화 환경산업처장은 "환경기업들의 유망한 환경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일보](#)

4. 한수원, 공기업 협의체 발족... 사회적 가치 성과 극대화한다



아시아투데이 | <http://me2.do/FfGL5WSA>

한수원, 공기업 협의체 발족... 사회적 가치 성과 극대화한다.

기사승인 [2019-03-15 09:45]



지난 1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가진 동남권 에너지공기업 협의체발족 식 /제공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남권 에너지 공기업 협의체로 한수원을 포함해 한국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동남권에 위치한 에너지 공기업 5 개사를 동남권 에너지 공기업 협의체로 발족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동남권 에너지 공기업 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했음.

-5 개사는 '에너지'라는 동일한 업(業)을 기반으로, 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협의체에 참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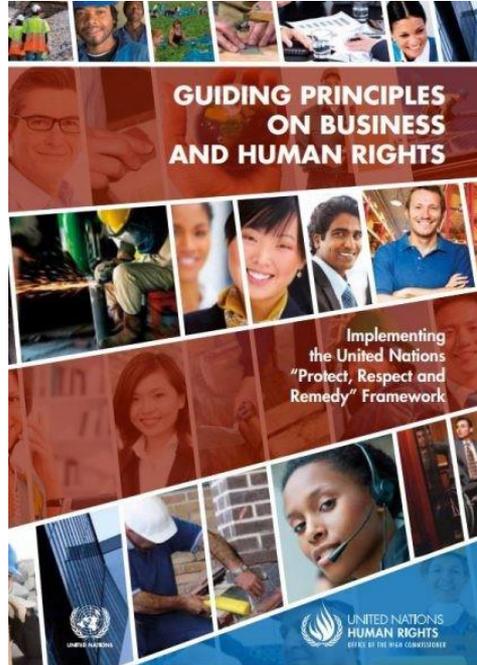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기관별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 이행현황 공유 및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으며 홍길표 백석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과 협업과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음.

-한편 향후 협의체는 지역별 순환 및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기관별 정부 정책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한 협업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아시아투데이](#)

CSR 뉴스

1. [UNGC CSR 가이드-①] "인권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 인권경영이란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경영'을 의미함. 한 마디로 기업은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져야 함.

-지난 2011 년 유엔인권이사회(UHRC)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뒤이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됐고, 이행원칙의 주요 일부 내용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통합되기도 했음.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제규범으로 ▲국가의 보호 의무 ▲기업의 존중 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이라는 3대 축을 기초로 함.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기업에게 사회적책임 의무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 분석함.

- 이제 인권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인식돼야 함. 즉 기업은 이제 투자 유치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권경영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함.

[-더나은미래](#)

2. '누구도 소외 안 되게' 기업 역할의 버전업

그림1 USLP의 3대 목표와 9대 중점 과제



-SDGs 가 채택된 지 4 년째가 되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빠른 속도로 이 새로운 인류 공동의 패러다임을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결합하고 있음. 단순히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

-도브, 바셀린, 립톤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글로벌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가 2010 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유니레버 지속가능한 삶 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USLP)'이 대표적인 모범 사례임.

- 세계 최대의 팜유 소비 기업인 유니레버는 자사 제품에 사용된 팜유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됐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지속가능한 조달'이라는 세부 타깃 목표 아래 자사의 팜유 공급망 투명성(traceability)을 강화하고 협력사들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8 년에는 유니레버의 확장 공급망에 속한 1600 개의 팜유 생산 공장과 유니레버가 사용하는 팜유의 88%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2019 년에는 100% 투명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아비즈니스리뷰](#)

3.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야”

|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온실가스배출 실적 연계 방안 간담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과 전현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는 28 일 국회 제 3 간담회실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실적 인정 연계 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음.

-이 의원은 “실제 우리는 2030 년까지 산업부문 감축량이 BAU 대비 11.7%에서 20.5%로 증가했으며 그 감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효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간담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이상준 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구매제도와 온실가스감축실적 인정’ 이라는 주제로, LH 화학 오창공원 오정훈 책임이 LG 화학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음.

-지난해 12 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하는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에너지데일리](#)

4. 유엔 사무총장 “여성 권리 증진 전 세계 진전에 필수적”



기자회견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8 일, 구테흐스 총장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유엔 고위 관리 그룹과 전 세계 유엔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양성평등(gender parity)을 달성했으며, 10 년 안에 유엔 전체적으로 이러한 평등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 개선,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근본이 된다고 강조한 구테흐스 총장은 다만 여성들이 권력에 접근하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까지 장애도 많다고 인정했음.

-이날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도 “양성평등은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여성이 경제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면 전 세계 발전에 수조 달러를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5. 세계은행 "6개국만 남녀 동등한 노동권 보장"

덴마크·프랑스·스웨덴 등 성평등 지수 만점...한국은 57위



성차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계은행이 발간한 '여성, 기업, 법 2019'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와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웨덴이 노동 관련법에서 성 평등을 보장하는 나라로 나타남.

-세계은행은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8 가지 지표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으며, 평가 지표는 이동의 자유, 연금 지급, 취업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법적 요인 등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세계은행 최고경영자(CEO) 겸 임시총재는 "성 평등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며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사람과세계경영학회
- 한국거래소
- 한국수자원공사
- 국민연금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 년도부터 **UNGC 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 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오는 3 월 26 일(화) 개최되는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상정 및 의결될 예정입니다.

기존 안내를 받으신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3 월 말까지 Engagement Tier(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 년 연회비 청구서는 정기총회 의결 이후 발행됩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